

## 음악과 진리의 말씀 방송 4,000회를 맞아 합창단이 예우를 받음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역사상 최장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4,000번째 방송에서 공연하고 있다.

### 브리트니 카포드, 교회 잡지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조지 더블류 부시 미 대통령은 세계 최장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4,000번째 방송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4,000번째 프로그램은 매주 있는 이 일요일 방송이 달성한 또 한 가지 기록에 불과하지만, 이는 미국과 전세계 방송 사상 괄목할 만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방송에서 공연하는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총 매니저 스콧 배릭 형제는 “우리는 이 방송이 계속적으로 번창하는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음악을 사랑합니다. ... 이 음악은 오늘날 세상에 선을 가져다 주는 강한 힘입니다.”라고 말했다.

“A Legacy of Music through 4,000 Broadcasts”[4,000회 방송을 통한 음악의 유산]은 이 프로그램의 77년 역사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더듬어 보는 특별 회고 방송으로 부시 미 대통령

의 녹음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배릭 형제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은 약 160년간의 역사 동안 10명의 미국 대통령을 위해 연주했으며, 다섯 번의 대통령 취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음악과 진리의 말씀 프로그램의 4,000번째 방송 돌파에 대해 합창단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연설 시에도 공연했다. 합창단이 백악관에서 가장 최근에 공연한 것은 2003년 11월 예술적 우수성을 기리는 국가 최고 영예인, “National Medal of Arts”[국제 예술 메달]을 받았을 때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유타 주지사 존 헨츠맨 주니어로부터의 표창이 있었는데, 그는 4월 30일을 유타 주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의 날로 선포했다.

그러나 합창단의 이러한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배릭 형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음악과 진리의 말씀” 75주년 축하 말씀에서 핑클리 회장님의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은 합창단의 역량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4,000회는 핑클리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발전해 나아가는 단계에서 이루도록 부탁하신 또 하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청중들은 회고 방송으로 이어지는 핑클리 회장님의 간략한 말씀을 생방송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오린 해치 미 상원 의원, 헨츠맨 유타 주지사, 그리고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관련된 그 외의 사람들도 간략하게 말씀했다.

이 방송 후에 크레이그 제섭 형제의 지휘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은 템플 스퀘어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했다. 1929년 7월 15일에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은 음악과 진리의 말씀에 매주 출연하여 왔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오케스트라도 방송에 참여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수 년 동안 종교적, 애국적, 민속적, 뮤지컬 음악 등에 걸친 다양한 음악들과 함께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방송해 왔다.

합창단장인 맥 크리스티슨 형제는 보

도 자료에서 이렇게 말했다. “75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4,000번의 방송은 참으로 놀랄 만한 업적이며, 이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지속적인 우수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 새로운 성전 발표, 회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필리핀**의 유일한 성전이 마닐라에 세워진 지 22년이 지난 지금 또 하나의 성전이 세워질 예정이다. 교회는 4월에 이 섬나라 성도들이 세부에 새로운 성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성전은 필리핀 중부 및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지어질 것이며, 이제 이들은 더 이상 1984년에 지어진 마닐라 성전으로 장거리 여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필리핀 마닐라 성전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레이 더블류 넬슨 회장은 교회 잡지에 이렇게 말했다. “세부 섬에 지어질 새로운 성전 발표에 관한 소식은 비사얀 섬과 민다나오 섬 전체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근처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염원하는 중부 및 남부 지역 필리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보통으로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재산을 팔 정도로 큰 희생을 치르면서 마닐라 성전에 가려는 결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2005년에는 한 그룹의 성도들이 평상형 트럭을 타고 나쁜 기상과 도로 형편 속에서 12시간을 여행하여 자신과 조상들을 위한 의식을 수행했다.

필리핀 청소년들 또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확인을 받기 위해 성전에 참석하고 있다. 마닐라 성전은 이들을 수용

실제 방송은 오랫동안 CBS 방송국의 기자로 일해 온 찰스 오스굿 형제에 의해 진행되었고 KSL TV방송 5번 채널에서 생방송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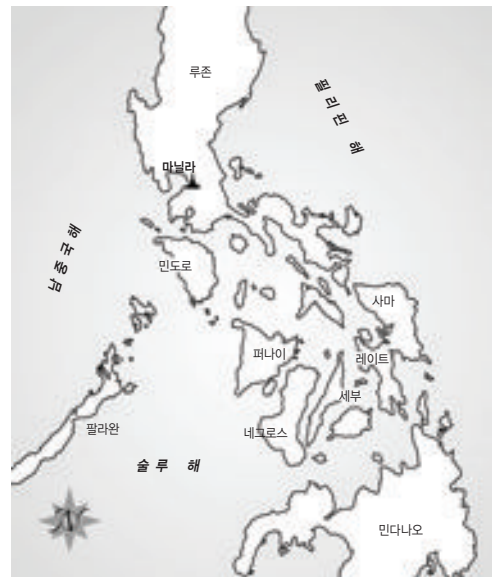
하기 위해 매우 바쁜 스케줄을 운영해 왔다.

마닐라 성전의 매이트론인 클레아 넬슨 자매는 최근에 전기와 수도 시설이 없는 비사얀의 먼 시골 지역에서 6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마닐라 성전에 오기 위해 희생을 치렀다고 교회 잡지에 말했다.

넬슨 자매는 “매우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조직한 봉사 프로젝트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하얀 셔츠와 넥타이 및 아름다운 주일 복장을 갖추고 성전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이 청소년들은 2000명 이상의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확인을 수행했다.

한 지역 신권 지도자는 죽은 자를 위한



세부 섬에 세워질 필리핀의 두 번째 성전이 발표되었다.

의식을 하러 성전에 가는 청소년들의 태도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필리핀 지역 칠십인 중 한 명인 마이클 존 유 테 장로는 “이러한 일은 그들이 십대 청소년으로서 겪는 많은 도전 과제들과 어려움을 대할 때 주님과과의 서약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업은 1898년 유타 주로부터 출발 전, 선교사로서 성별된 두 명의 후기 성도 군인들이 필리핀 땅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되었다. 선교 사업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61년에는 교회가 필리핀에 공식 등록되었다.

마닐라와 세부 시는 필리핀 최초의 선교부이다. 마닐라 성전이 건축될 당시 교회 회원 수는 7만 6천명이었다. 현재 필리핀 교회 회원 수는 회중이 천 이상에 집회에 520,000명 이상이며 회중은 천 단위를 넘어선다. 세부 성전은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 성전 중 132번째로 발표된 성전이다. ■

가을의 청남 오픈 하우스와 워크숍에서 본부 청남 회장단은 청남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약속된 축복을 얻도록 돕는 일에 있어서 부모와 정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남들이 이루어 낸 발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하는 청남들과 지도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달성할 기회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러시아 동쪽 해안의 블라디보스톡에 갔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노변의 모임이 시작될 무렵 저는 단상에 앉아서 둘째 줄에 있는 한 청남

이 제사들을 위한 지

침서인 하나님

에 대한 의무에

몰두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야! 솔트레이크로부터

17시간대나 떨어진 이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니.” 말씀을

위해 일어나서 저는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기어예요.”라고 그는 대답

했습니다.

“몇 살이죠?”

“열일곱 살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책을 읽는

걸 봤는데, 무슨 책을 읽고 있었

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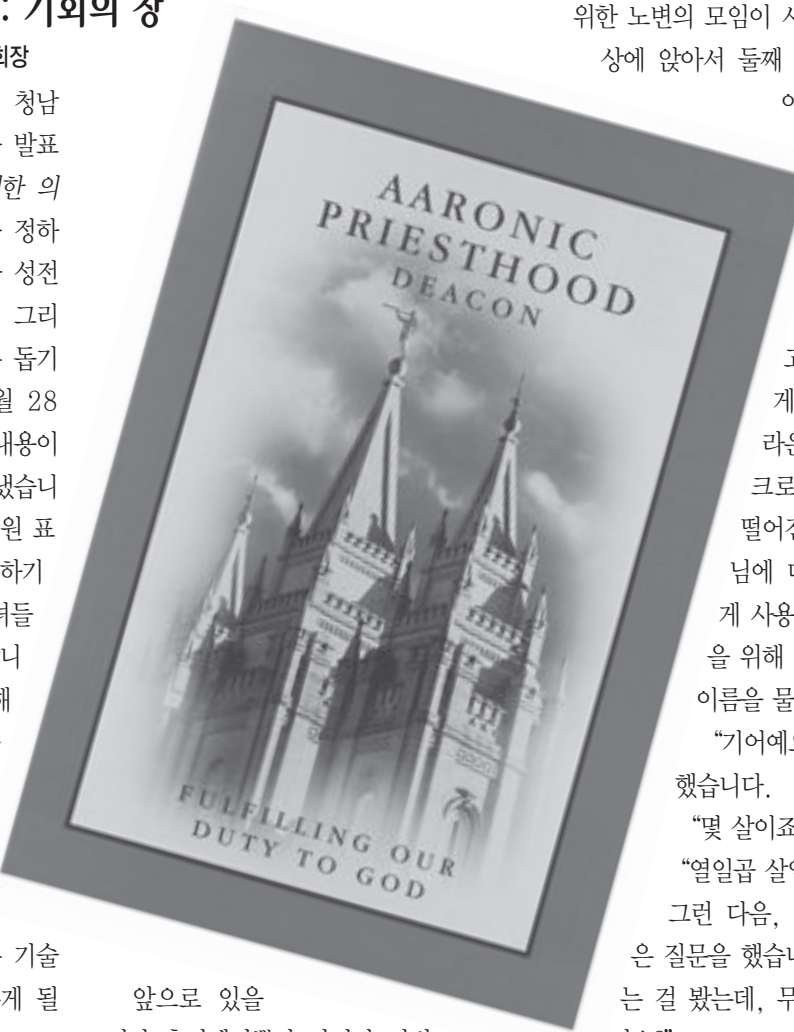
##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기회의 창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본부 청남 회장

제일회장단은 몇 년 전에 교회의 청남들을 위한 새로운 달성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는 청남들이 합당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함을 통해 맹기세택 신권과 성전 엔다우먼트, 전임 선교 사업, 결혼,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것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01년 9월 28일에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청남들이 모범 대원 표창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모든 청녀들은 청녀 표창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그들은 성전으로 자신을

인도하고 가족과 주님을 위해 일생 동안 봉사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기술과 성품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기타 훈련에서뿐만 아니라 이번



그는 곧바로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책을 어디서 구했나요?”

“모임 바로 전에 홀에서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기어가 말하자, 즉각 디미트리라고 하는, 바로 앞줄에 앉아 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방을 나가 재빨리 자신의 책을 받아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발전할 기회에 대해 참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 정원회, 그리고 가족에게 맞추어 계획된 것입니다. 이것은 각 집사, 교사, 제사에게 수여되는 상들의 많은 요구 사항이 가정에서 달성될 수 있고, 청년 부모들이 점검을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청년과 그 부모들이 프로그램과 지침서에 익숙해져야 하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 신권 지도자들의 방문

제 친구 댄은 11살이며, 곧 집사로서 성임될 것입니다. 집사가 되기 얼마 전에 댄은 워드 집사 정원회 회장단과 감독단 일원 또는 집사 정원회 고문으로부터 정원회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한 환영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댄과 그의 부모님에게 아론 신권을 받고 집사 성임을 받고 나면 할 수 있게 되는 모든 훌륭한 일, 즉 성찬 전달, 금식 헌금 접수, 봉사 활동 참여 및 신권회와 청년 활동 참석 등과 같은 일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침례 요한이 사스케하나 강둑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나의 동역자 된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은 가정의 밤이나 일요 활동에 적합하다.

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3:1)”라고 말했을 때 회복된 아론 신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축복인지에 대해 댄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집사 지침서인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를 댄에게 가져다 주고,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무엇을 달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타기 위해 노력하는 각 집사에게 제일회장단이 약속하신 다음의 글을 댄이 읽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믿고 계시며 여러분이 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성약을 맺고 지키십시오.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모님과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무를 성취하고 가슴 설레는 미래의 도전을 위해 준비할 때 여러분은 커다란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sup>1</sup>

### 가정에서

많은 요구 사항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고 또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회 고문은 댄의 부모님이 그 조건에 익숙해질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댄의 부모님은 *청소년의 부모와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댄을 돕는 그들의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많은 조건(특별히 “가족 활동” 및 “영적인 발전” 항목에서)이 가정의 밤이나 일요일에 적합하며, 또한 이것은 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댄의 부모님은 댄이 집사로 있는 동안 네 번의 가정의 밤 공과를 가르치는 것이 요구 사항 중의 하나인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은 댄이 공과를 어떻게 준비하고 가르치는지 배우도록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댄이(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 모두가) 신앙개조를 복습하고 다시 암기할지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댄 또한 가족을 위해 최소한 두 끼의 식사를 준비하고, 4대 계보를 작성하고, 봉사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매일 경전을 읽는 습관을 발전시키고, 소책자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고 부모님

이나 신권 지도자와 그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댄의 부모님은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면서 댄이 그 요구 사항들을 성취하도록 어떻게 돕고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댄의 아버지가 아들과의 접견을 통해 댄의 집사 증서를 향한 발전을 검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접견을 하는 동안 댄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네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지? 이 일이 어떻게 성전에 대해 너를 준비시켜 주니? 물론경을 읽으면서 너의 간증이 얼마나 커졌는지 말해 주겠니? 하나님에 대한 의무 목표 달성을 위한 너의 노력이 가족을 강화시키고 더 나은 아들이 되게 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그의 목표와 꿈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할 좋은 기회가 된다.)

### 정원회에서

댄의 정원회 회장 또한 몇몇 요구 사항들이 정원회에서 수행할 일들이며 댄이 이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정원회 활동이 계획될 것이라고 댄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회장은 또한 주기적으로 댄과 함께 그의 발전을 검토하고, 정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시로 댄의 부모님과 점검할 수 있으며, 정원회 회장단과 고문들도 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기 위한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상호 향상 모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감독단 또한 정기적으로 댄의 발전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된 접견을 할 수 있으며, 와드나 지부의 성인 한 명, 가능

### 가정 복음 교사에게

아론 신권 연령의 청남이 가족 내의 유일한 교회 회원일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경우나 부모가 혼자인 가정의 경우, 복음 교사가 그 청남을 도와 신권 직분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의 요구 사항들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하다면 청남 회장단 서기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각 청남의 발전을 점검하는 일을 돕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증서 및 진보

집사 증서를 위한 모든 요구 사항들을 달성한 뒤에 댄은 감독과 접견하여 발전 상황을 검토하고 집사의 소책자 끝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페이지에 서명을 받은 다음, 집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댄이 교사가 되기 바로 전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 때 다시 정원회 지도자에게서 그와 같은 방문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사 지침서(그 후엔 제사 지침서)를 받게 됩니다. 그가 집사, 교사, 제사 증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메달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댄의 노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상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 발전일 것입니다. 개인 발전은 댄으로 하여금 성전 의식을 받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충실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해 더 잘 준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론 신권을 가진 청남의 부모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청소년의 부모와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뿐만 아니라

## 부모님을 위한 점검표

1.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지침서 [집사용]와 함께 청소년의 부모와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를 구한다. 아직 지침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 또는 아들의 아론 신권 고문에게 이 기사를 보여 주고 원하는 시간에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이 지침서들은 지역 배부 센터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www.ldscatalog.com](http://www.ldscatalog.com)을 통해 구할 수 있다.)

2. 적합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증서를 위한 각각의 요구 사항을 배운다.

3. 아들과 함께 그가 완수한 요구 사항을 검토해 보고 아직 완수해야 할 사항을 선정하도록 돕는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청남들의 경우, 그들의 필요 사항에 맞추기 위해 요구 사항을 수정하거나

스스로 정할 수 있음을 기억한다.

4. 아들이 각 목표에 따라 노력하고 완수할 것을 계획하도록 돕는다. 여러분과 가족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토론한다. 또한 각각의 목표가 어떻게 가족을 강화시키며 여러분의 아들이 효과적인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지 토론할 수 있다.

5. 시간을 정해 놓고 발전 상황을 점검한다. 아들에게 안전한 장소에 지침서를 보관하게 한다. 청남들이 목표를 달성할 때 칭찬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관대하고 구체적이며 진심으로 칭찬하도록 한다.

6. 위의 3~5까지 단계를 반복한다. 요구 사항들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들과 함께하며 즐긴다.

연령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지침서를 신중히 살펴볼 것을 권고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과 목적을 토론하고 그에게 도전 과제가 될 적합한 목표들을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지침서에 열거되어 있는 요구 사항들을 개인의 환경, 관심사 및 청남의 필요 사항에 따라, 부모와 아론 신권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회의 창

오늘날 청남들이 끊임없이 마주치는 문제들, 즉 그들을 약화시키고 타락하도록 이끄는 사탄의 시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달성을 통해 오는 축복이 지

금보다 더 필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경전을 열심히 읽고, 신앙개조를 외우고, 그 밖의 요구 사항들을 수행해 나가는 청남은 어느 것이 선이며, 올바른 것이며, 진리인가에 더 초점을 두게 될 뿐만 아니라 악을 피하기 위해 더욱 잘 준비될 것입니다.

제가 십대였을 때, 상호 향상 모임에서 우리는 그 해의 주제였던 한 성구를 배웠습니다. “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엘마서 34:32)

청남들을 위한 기회의 창은 그리 오래 열려 있지 않으며 재빨리 지나갑니다. 이 성구가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일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제일회장단은 교회의 청남들에게 목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커다란 도전과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아론 신권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은 선을 위한 훌륭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sup>2</sup>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아론 신권 청남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청남들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일을 시작하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

### 주

1.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2001년), 5쪽.
2.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4쪽.

##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송된 개척자 음악회

애비 올슨, 교회 잡지

2006년 7월21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컨퍼런스 센터 및 전세계 곳곳에 모였다. 모인 이유는 후기 성도 개척단이 1847년 7월 24일에 솔트레이크로 들어간 지 159년이 되는 것과, 첫 손수레 부대가 계곡에 들어간 지 15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탬플 스퀘어의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축하 공연을 보기 위해서이다. 이 방송은 7월 23일에 재방송되었다.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의 음악 감독인 크레이그 제섭 형제는 교회 잡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후일의 개척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돕도록

제일회장단이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념 음악회는 우리 앞에 갔던 분들뿐만 아니라 아울러 오늘날 교회에서 개척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개척자 정신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한 개척자 역할을 하는 한 가족이 음악회에 초대되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브래트 가족 합창단은 미주리 주 브랜슨 PBS 텔레비전에서 매일 아침 방영하는 버라이어티 쇼에 나와서 노래하는 후기 성도 가족이다.

개척자의 날 음악회에서 브래트 가족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공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5년 12월 4일, 그 가족은 음악과 진리의 말씀 방송에 특별 출연자로 나왔으며 그 뒤에 합창단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공연했다.

톰 브래트 형제는 합창단과의 공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와 같은 주님의 합창단과 함께한 경험은 우리의 음악에 다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 음악을 새롭고 탁월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개척자의 날 기념 음악회는 마지막 공연을 한 지 3년이 되었다. 2004년에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음악과 진리의 말씀 75주년을 기념하는 일에, 2005년에는 95번째 생일을 맞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을 축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지난 개척자의 날 음악회에는 나부 성전 헌납식 음악과 개척자 유산과 관련된 찬송가가 포함되었다. 올해의 개척자의 날 음악회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개척자 축하 기념 행사, the Days of '47 (1847년의 날들)의 공식 행사로 지정되었다.

생방송 및 이후 저장된 방송 음성 자료와 동영상이 [www.lds.org/broadcast](http://www.lds.org/broadcast)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음악회의 인터넷 음성 자료 파일은 다음의 17개 언어로 제공된다. 한국어, 광둥어, 나바호어, 라오스어, 마샬어, 몽, 베트남어, 북경어, 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아이티어, 영어, 캄보디아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및 폴란드어. 비디오 저장 파일은 영어, 미국 수화 및 스페인어로 나와 있다. ■

## 새로운 회원 돕기를 목표로 한 리아호나 10월 특집호

교회의 새로운 회원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은 10월에 중요한 추가 자료를 받게 된다. 리아호나 10월호는 교회에 들어오므로써 받는 축복과 어려움을 설명하는

한편 그들의 간증과 결의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정보와 격려를 주며 최근에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것이다.

새로운 회원과 오래된 회원 모두 10월호에서 일반적인 문제와 자주 거론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번 호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환영 인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모든 회원으로 하여금 알았으면 하는 내용, 새로운 전통을 배우고 옛 전통을 뒤로 하는 일, 가족의 일부만 회원인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일, 배운 것을 나누는 방법,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 등의 주제에 대한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10월호는 제일회장단 메시지, 방문 교육 메시지, 함께 나누는 시간 및 후기 성도의 소리를 포함한 잡지의 일반적인 기사를 모두 유지하는 가운데, 각 기사마다 새로운 회원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담게 된다. 많은 개종자들이 새로운 회원으로서 그들이 겪었던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다. 다음 호에는 교회 잡지에 대한 소개와 그 잡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안도 포함된다.

10월호 추가본을 원하는 회원들은 지역 배부 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 2006년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2006년 9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경전에서 얻는 용기와 위로”를 참조한다.

1. 복음 그림 패킷 517(스펜서 더블류 김블)을 보여 주고, 김블 회장이 사도로 부름 받았을 때 위로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전을 읽었다고 설명한다. 김블 회장은 니파이전서 3장 7절을 읽고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했다. 어린이들에게 경전을 찾아 니파이의 말씀을 읽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경전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위로를 주는 그 밖의 다른 약속들을 찾아 보기를 바란다.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나이가 더 많은 어린이 세 명에게 반원들 앞에서 다음 성구를 읽게 한다. 요한복음 14:26(성령), 교성 108:8(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구해 주신다), 요한일서 2:25(영생). 어린이들에게 세 명의 어린이가 각각 성구를 읽을 때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김블 회장님처럼 그들도 경전에서 위로와 용기를 찾을 수 있음을 간증한다.

경전에서 위로를 찾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성구, 로마서 15장 4절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낱말 스트립이나 칠판에 다음의 글을 적는다. “... 기록된 바는 ...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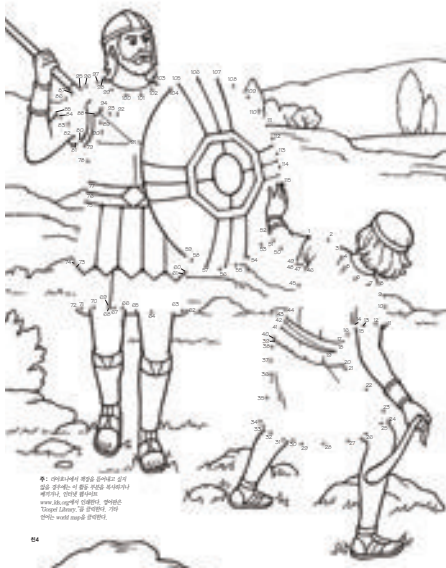
어린이들에게 이를 몇 번 암송하게 한다. 세 개의 마침표는 한 개 이상의 단어가 인용문에서 빠진 것을 뜻한다고 설명

한다. 먼저 단어의 뜻(일부 또는 전체)을 말해 준 뒤, 한 번에 몇 개의 단어만을 보태면서 성구를 가르친다. 마지막에 “성령의 위로”를 더한다.

2. “페르시아 제국” 지도(집회소 도서관에 있는 지도 912, 또한 [www.lds.org](http://www.lds.org)에 클릭하여, The Scriptures, “Study Helps: Bible Maps,” “7. The Persian Empire”를 찾아 인쇄할 수 있음)를 보여 준다. 페르시아 제국은 매우 큰 나라였다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그 나라가 얼마나 크지 알게 하기 위해 이 나라 면적을 어린이들이 잘 아는 것과 비교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페르시아 제국은 미대륙과 크기가 거의 같아요.” 수사(또는 수산) 도시에 별을 하나 붙인 다음, 별이 두 가지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1) 수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으며 (2) 에스더의 고향이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을 뜻한다. 에스더의 이름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한 그녀에게 적합한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여러분이 에스더의 이야

기(에스더 4~5장 참조)를 할 때 어린이들이 귀 기울여 들도록 권유한다. 에스더가 백성들에게 그녀를 위해 금식하게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16)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에 맡긴 채 왕 앞에 감으로써 어떻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는지에 초점을 둔다. 어린이들에게 에스더가 그녀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어떤 일을 했는지 묻는다.

어린이들에게 에스더처럼 용기를 가질 때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에게 에스더가 가졌던 것과 같은 용기를 보여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나는 친구를 초등학교에 초대할 수 있어.” 라든가 “나는 적절하지 않은 텔레비전 쇼를 끌 수 있어”)과 할 수 있는 말(“나는 이 노래 가사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또는 “우리 야구 게임에 조이도 넣어 주자. 외로운 것 같아 보여”)을 번갈아 하도록 한다. ■



### 경전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으

“대왕은 나의 뜻대로 내니 구원하시라 내니 구원을 구하여라”(에스더 7:1)

**원인 레굴러의 레굴러서 원스**

“대왕은 나의 뜻을대로 내니 구원하시라 내니 구원을 구하여라”라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경전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에스더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대왕은 그녀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녀의 용기를 본받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기 위해, 우리는 경전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녀의 용기를 본받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기 위해, 우리는 경전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왕은 나의 뜻대로 내니 구원하시라 내니 구원을 구하여라”라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경전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에스더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대왕은 그녀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녀의 용기를 본받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기 위해, 우리는 경전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신인식 형제 가족

제 기억에 제가 여덟 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른 시기부터 종교를 접했는데, 성장하면서 교회에 여러 종파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또 그 종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 사이에서 언제



부터인가 제 나름대로 참된 신앙을 찾기 위해 여러 종교를 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어디에서도 성실한 신자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생활하면서 여러 사정 상 교회에 꾸준히 다닐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아내와 함께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안겨 준 곳이 아무 데도 없었기에 교회에 나가는 일은 그만 두었지만 저와 아내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희 가족은 지난 3월, 교회로 오는 첫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종교가 아닌 영어 공부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인터넷을 살피다가 우연히 박복주 형제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수 지부와 선교사 숙소 전화 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교회도, 선교사 숙소도 저희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인터넷에 오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당시에 제가 아는 것은 없었지만 이걸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과거의 선지자는 믿으면서 현재에는 선자자란 있을 수 없다고 이 교회를 배척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박복주 형제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 형제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만난 존스 장로님과 패디스 장로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에 오른 이야기들이 잘못 알려진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직접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딸 현경이와 함께 간 교회. 첫인상이 신선했습니다. 마음

속으로 그려 봤던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첫 방문을 하고 나서 제 아내도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역시 교회에 참석하고 나서 저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혈압이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밤낮이 바뀌어서 일해야 하는 것이

라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룻 밤을 꼬박 새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런 체력적인 부담과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저희는 침례를 결심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난감했던 것은 오랫동안 가까운 다른 교회에 다녔던 큰 딸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두고, 게다가 친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마땅해 하는 곳으로 교회를 옮기는 일은 어린 아이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침례를 결심한 저희 가족에게 여러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큰 딸과 친구들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커피를 끊으려는 저희들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가까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안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아내와 저는 이 교회가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두달 반 가량의 시간이 흐르면서 큰 딸 현진이가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하여 2006년 6월 18일에 저 신인식 형제, 아내 이해숙 자매, 큰 딸 신현진 자매, 막내 신현경 자매 이렇게 저희 네 식구가 침례의 물가에 함께 모였습니다. 선교사들의 축하 노래에 눈물이 글썽거렸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느껴졌고, 그 순간 하나님이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는 가족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가족을 중요한 신앙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믿었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저희 가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긴 장마와 무더위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던 올 해 여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과 맞닿은 기상과 소망을 지닌 후기 성도 청년 독신 성인들은 전국 각지의 산과 바다, 계곡과 호수로 청년 대회를 다녀왔다. 지난 1월, 속리산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올 해에는 각 지역 별로 자체적인 대회를 갖겠다고 계획한 우리 후기 성도 청년들이 그 약속을 얼마나 훌륭하게, 그리고 즐겁게 성취했는지 그들의 여름 한자락을 리아호나에 실어 전한다.



#### 봉사의 기쁨을 찾아 떠난 광주 청년 독신들

광주 스테이크 독신 회원들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곡성 월정리 야영장에서 청년 대회를 열었다. 대회의 주제를 “봉사”로 정한 광주 청년 독신들은 야영장 지역 농촌에서 논에서 피 뽑기, 메론 씨앗 심기 등을 돕는 활동을 벌였고, 아름다운 섬진강변에서 물놀이와 하이킹, 체육 대회를 즐겼다.(최진 기자)

#### 무더위를 떠나 자연 속으로 간 대구 청년 독신들

대구 독신 회원들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경남 산청으로 청년 대회를 다녀 왔다. 지리산 아래에 흐르는 경호강 근처에서 2박 3일을 지낸 대구 청년들은 래프팅과 산행, 그리고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순결의 법 등 여러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한여



윗쪽: 대구 스테이크 청년들 래프팅에 도전하다. 왼쪽: 농촌 봉사 활동에 구슬땀을 흘린 광주 청년들. 아래: 바다에서 한창 물놀이 중인 마산 청년들

## 2006년 청년 대회!!!

름 햇빛만큼 따갑게 내리 쬐는 독신 회원들의 인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보는 시간을 보냈다.(조경희 기자)

#### 하나가 되기 위해 모인 마산 청년 독신들

마산 지역 청년 독신들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하나가 되라’는 주제로 모여 2006년 하계 청년 대회를 열었다. 젓먹던 힘까지 쏟아 내야 했던 바닷속에서의 기마전과 수구 경기, 바나나보트 타기, 모두의 몸과 마음을 풍성하게 해 준 즐거운 바베큐 파티와 세미나는 마산 청년 독신들에게 잊지 못할 한 여름 날의 추억이 되었다. 특별 초청 세미나에 연사로 초대된 고등평의원 김치원 형제는 “훌륭한 부부가 되는 방법은 서로가 자신의 반을 포기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독신들의 미래에 대한 훌륭한 말씀을 전했다.(김민정 기자)

#### 부산 청년들이여, 용기를 가져라!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 청년 독신들은 함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3일부터 5일까지 울산광역시 연양 배내골에



서 청년 대회를 가졌다. 대대가 함께 여러 가지 임무 수행 지령을 수행하며 숨은 범인을 찾아야 했던 “추리 극장” 활동과 생과일 주스 만들기, 봉사 쿠폰 만들기 등 다채로운 베이스 활동이 있었던 산행, 시원하고 깨끗한 계곡물에 땀과 서머함을 씻어낸 물놀이 등 “청년들이여, 용기를 가져라!”라는 대회 주제처럼 더위가 무색할만큼 열정적인 참여와 활기찬 진행이 어우러졌던 대회였다. 이 대회의 준비 위원 중 한 명인 부산 스테이크 방어진 와드 이인주 자매는 “후기 성도 청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이번 대회에 걸었던 기대와 성과를 간증으로 전했다.(전건우 기자)



안양 청년들의 단체 사진



활동 중인 부산 청년들

###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합동 하계 대회를 가졌다. “즐거운 가족 여행”이라는 모토를 갖고 시작한 이번 대회에서는 대대나 지파가 아니라 “힘찬 가족”, “위대한 가족” 등의 이름으로 조를 편성했는데, 대회 기간 내내 각자 가족 그룹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아들, 딸 등 2박 3일 동안 진정한 가족으로 지내기 위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대회였다. 첫째 날에는 호우주의 보가 내릴 정도로 퍼부는 폭우 때문에 실내에서 지내야했지만 날이 갠 이튿날부터는 설악산의 명물 울산 바위까지 함께 등반하고, 속초 바닷가에서 물놀이와 발야구 놀이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 어렵게 휴가를 내서 대회에 참가했다는 화양 와드 이효원 형제는 “비록 가사이지만 가족 활동을 통해 성전 결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키울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신석 기자)

### 여유로운 대회, 안양 청년 독신들

안양 지역 청년 독신들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도 양수리에서 청년 대회를 보냈다. 호수를 가르며 바나나보트에 몸을 싣는 것부터 시작한 이번 대회에서는 스테이크 회장단과의 토론 시간, 영화 관람, 남이섬 산책, 체육 활동 등 여유롭고 자유로

운 일정 속에서 스테이크 회원들끼리 서로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히 대회 기간 중 모든 식사가 스테이크의 기혼자들의 봉사로 제공되어 청년들에 대한 스테이크의 배려와 보살핌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금천 1와드 강미정 자매는 “편안함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 여행이었고, 교회에서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며 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표현했다.(나선경 기자)

### 정상에 선 청주 스테이크 청년들

청주 스테이크 청년 독신들은 더위가 하늘 끝까지 차오르던 8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앙과 우정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산악 동반 청년 대회를 다녀왔다. 충북 제천에 있는 월악산을 시작으로 단양에 있는 소백산까지 약 20km를 행군하며 찌는 듯한 더위와 체력의 한계에 맞부딪히는 2박 3일을 보낸 것이다. 개종하여 처음으로 대회에 참석한 최원창 형제는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른 체험을 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승영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라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전했다.(민병숙 기자)



소백산 정상에 오른 청주 지역 청년들

더욱 자세한 기사와 사진을 웹사이트([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하계 가족 대회, 청소년 대회

유난히 가족 단위 대회가 많았던 올 여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후기 성도들이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의 시원한 여름 이야기를 전한다.

## 광주 청소년 대회

광주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로 청소년 대회를 다녀왔다. 이번 청소년 대회는 사실 3박 4일이 아니라 5개월 동안 치렀다고 말해야 정확한 것이다.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대회를 준비한 광주 스테이크는 지난 4월부터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과제를 주었다. “이해로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청소년들 스스로 계획하여 수행해왔던 광주 청소년들은 이번 대회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함께 되돌아보고 자신들의 성장을 기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의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했던 여러 청소년 중 이한나 자매는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고, 작은 희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고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한라산을 등반하며 더욱 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최준규 형제는 “제주도 여행은 평생의 행복한 추억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될 때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며 이번 대회의 의미를 표현했다.(최진 기자)

##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울산광역시 언양 배내골에서 청소년 대회를 치렀다. 150여 명이라는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인원이 모인 이번 대회에서 첫째 날

에는 부산 지역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영어 캠프가 전임 선교사들의 준비와 활발한 참여를 보여준 청소년들의 활약으로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영어 캠프 후에는 야간 비박(비닐로 잠자리를 만들어 야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과 암벽 등반, 사격, 낚섬, 향건 조립 만들기, 야외 취사 등 스카우트 활동을 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전 의식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부산 지역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 활동과 스카우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하여 이번 대회를 준비했고,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부산 청소년들에게 고무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입을 모았다. 한편 대회 전날까지 실새없이 내린 빗속에서도 대회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부산 회원들의 신앙은 대회 기간 내내 화창한 날



진지하게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하는 부산 청소년



씨로 응답되어 주말까지 큰 비가 오겠다는 일기예보를 무색하게 했다고 한다.(정원몽 형제 기사 제공)

### 부산 서 지방부 청소년들의 대회

지난 7월 29일, 부산 태종대에 모인 부산 서 지방부 청소년들은 2006년 하계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 부름 받은 청소년 역원들과 지방부 산하의 청소년들의 첫 만남이 있어 서로 의로운 목표를 위해 열심히 참여하자는 격려와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지방부 회장단과 청소년들이 함께 수구 경기 등의 활동을 가졌다.(김정민 기자)

###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시온 가족 캠프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가족들은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김포 청소년 수련원에서 시온 가족 캠프를 열었다. 스테이크 회원들이 모두 함께 간 캠프였지만 각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거의 한 자리에서 청소년 대회와 청년 대회, 초등회 대회가 함께 열리고 그 모습을 가족들이 지켜 보는 시간이었다. 문화의 밤 행사에서 각 와드의 장기자랑으로 축제의 서막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이튿날 새벽 다섯 시에 모두 모여 문수산을 등반하고 그 위에서 스테이크 산상 기도회를 했다. 상쾌한 새벽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과, 가족과,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진 회원들은 이후 각 신권회 별로 대회를 가졌다. 청년과 청소년, 초등회 회원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을 배우는 세미나와 미래를 설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고,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 전원이 포크 댄스를 추며 캠프파이어의 낭만을 즐겼다.(정춘영 기자)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시온 캠프에서 활동 중인 회원들

### 수원 스테이크 가족 한마음 축제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가족 한마음 축제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맑은 시냇물과 산, 바다에서 2박 3일을 지낸 수원 지역 회원들은 미

니 운동회와 물놀이, 베이스 활동, 세미나 등을 하며 우정과 신앙을 나누었다. 축제 마지막 날에 바다로 나간 회원들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모래로 만든 성전 조각을 만들기도 했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머물렀던 마을 주변을 청소하는 봉사 활동을 하여 축제에 모인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었다. 260여 명 수원 스테이크 가족 중 스테이크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는 이윤분 자매는 “청소년들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변화를 보며 행복했어요.”라며 이번 대회에서 얻은 기쁨을 표현하였다.(최미경 기자)



### 순천 지방부 청소년 대회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광양 백운산에서 청소년 대회를 열었다. 스무명 남짓의 청소년들은 그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지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체육 대회와 산행, 물놀이, 캠프 파이어와 무도회 등 여러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질서있게 치뤄내어 비구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빛을 보여 주었다.(김정애 자매 기사 제공)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

더욱 자세한 기사와 사진을 웹사이트([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 작가의 눈으로 본 미국 속의 몰몬



종교 전문 취재 작가 김나미씨

지난 7월, 출판실로 보내진 메일 한 통에는 소위 “몰몬”에 대한 한 전문 종교 기자의 에세이가 실려 있었다. 종교 기자 김나미씨는 미국에서 체류하며 만난 몰몬, 후기 성도에 대한 느낌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병든 미국을 살리는 길, 몰몬이 해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내왔다. 그녀가 왜 세계 제일의 강국인 미국이 가진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생각했는지,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 특히 종교와 사회에 대해 깊은 지식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이 교회가 가진 힘은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녀의 글을 통해 살펴보자.

### 병든 미국을 살리는 길, 몰몬이 해답이다

#### — 루스 앤 해밀톤을 만나서 —

스탠포드 대학 종교학과 내에는 유대교 연구소와 함께 불교 연구소가 있다. 이곳 연구소에 적을 두고 미국 종교계를 둘러 보면서 비몰몬 미국인들이 몰몬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궁금하여 교수님과 동료연구원들에게 자주 묻곤 했다. “What you think of Mormon?”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LDS보다는 “몰몬”이란 단어에 더 친숙함을 느낀다는 인상도 받았다. 물론 작은 학교 연구소라는 곳에 소속된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빠지지 않고 한결 같은 대답을 주었다. “무척 건전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같은 몰몬이 되어야만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은 몰몬이어야만 도움을 준다. 비몰몬인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라는 등등의 대답을 들었다.

그 전까지 내가 몰몬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오래 전 서울 신촌에 있는 성전을 몇 번 가 본 것, 몰몬경을 한 번 읽어 본 것, 검정 양복에 하얀 셔츠의 깔끔한 옷차림을 한 몰몬 선교사들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눠 본 것이 전부였다. 내가 몰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옆 건물에 사는 집 주인 레리 때문이었다. 집 주인이 몰몬임을 안 것은 이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였다. 외출도 안하고 지난 십여 년 간 누워 계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몇 달 간 매일 볼 수 있었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정성에서 유교에 깊이 뿌리를 둔 우리의 효가 이 집에서 실제로 살아나고 있음에 감동했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맞아 그의 여동생의 방문으로 난 또 한 사람의 몰몬을 만났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본부에서 일하는 여동생이 어머니 병문안을 온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 앤. 그녀를 만난 소감을 말하자면 우선 내가 남들을 통해 들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무척 열려 있

었고 남에 대한 배려가 깊으며 동양적인 정서가 듬뿍 느껴졌다. 몰몬인 이 가족이 모든 몰몬을 대표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보고 느낀 점은 차가운 백인들 가운데 유독 따스한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자유분방하고 극도의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소위 나의 “들은 것에 고정되어 있던 시각”이 바뀌어 갔다. 일요일 교회 예배에도 같이 참석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있었다. 난 그녀와 마주 앉아야 했다. 개인적인 그녀의 신앙심도 부러웠고 또 몰몬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지니 들은 것을 재확인하는 질문이 나왔다. 다음은 루스 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나미** 난 개인적으로 그간 미국을 보며 미국 땅에 신앙인이 많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지켜보고 바라본 미국이 무척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미국에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에 병든 환자가 많아 보여요. (중략) 그런데 비 몰몬인들로부터 들은 것에 의하면 몰몬교인 가운데 마약 환자, 알콜중독자, 노숙자는 없다고 하며 또 정직성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무원 채용 때에도 몰몬교도를 반드시 뽑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 교회에 참석하고 나서 미국 땅에서 몰몬 성도들만은 유독 심신이 건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솔직히 미국 땅에 몰몬이 없다면 어찌 될까 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신앙이 많은 길 잃은 양들에게 치료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은 건강하게 살아나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미국의 몰몬교인은 어떤 사람들

인가요?(관찰자로 내가 미국을 이렇게 보는 시각에 그녀는 약간 놀라움을 표시하더니 비물질론자들로부터 듣는 찬사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루스 앤 해밀튼** 언젠가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교회로 타임즈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성실한 사람들이고 또 가족을 중시하지요. 이것은 모두 성도로서의 신앙 덕분이지요.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의 삶에도 고난은 있을테고 나 역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지만 신앙으로 견뎌냈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신앙 이외 그 무엇을 위로로 삼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소중히 다루길 기도합니다.

**김나미** 200년도 채 안된 역사 속에서 전세계 160개국에 1,200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대규모 교회로 발전했는데 전 세계를 거론하지 않고 미국만 보더라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인 몰몬 교회가 세계적인 문제, 예를 들면 헬벳과 굶주리고 목마른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루스 앤 해밀튼** 우리 교회는 초기에 박해도 받았고 희생도 많이 치렀지요. 그러나 우린 결국 해냈고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되었어요. (중략) 우리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헬벳은 자에게 옷을 주고 감옥과 환자들을 돌보아 왔어요. 단지 메스컴을 빌려 인류를 홍보를 하거나 크게 다루지 않을 뿐이지요. 주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단지 먹을 물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같이 가르쳐 주지요. 물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직접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 마시고 또 나아가 우물까지 관리하도록 하는데 우리의 손길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병과 기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허리케인, 지진, 수재, 토네이도, 전쟁 등등의 세계 긴급 구호 현장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쓰나미 때도 우리는 이슬람 구호단과 함께 현장에 93톤에 가까운 의료 구호품을 보냈어요. 또한 출산사 아

기의 호흡 곤란을 돕는 소생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2004년에는 16개국에 전문가를 파견 현지인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외에도 휠체어 기증, 비상 구제, 수질 개량으로 정수 공급, 시각 장애 치료도 우리의 주된 복지 사업으로 삼아 힘쓰고 있는 분야예요.

**김나미**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200년 미만의 역사에서 1200 만명의 대 교회를 이룬 그 역동력이 바로 여기 있었나 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 떠올랐다. “너희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개인적으로 그녀를 보면 언뜻 연약한 인상을 주지만 매우 확고하고 강직한 신앙인이자 또 장차 교회에 환원을 꿈꾸는 기부자이다. 옆에서 그녀를 가까이 해 그 강직한 신앙심을 온통 다 배우고 싶다는 욕심까지 들었다. 그녀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 전 몰몬 성도를 대표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물이었다. 난 학교로 돌아가 나에게 몰몬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주었던 분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야 했다. (종교 전문 작가 김나미)

(김나미씨는 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 과정(불교 철학 전공)을 마쳤으며 현재 종교 전문 취재 작가로 주요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이 기사의 전문은 [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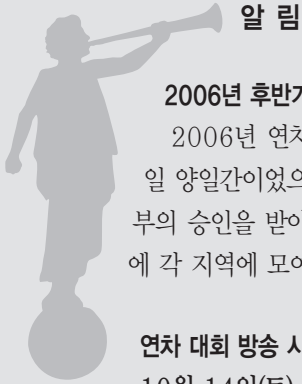
김나미씨와 인터뷰를 한 루스 앤 해밀튼 자매

## 교회 공보

### 언론 매체 관련 교회 공보 추진 사항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미국 유타 주와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일부다처주의자 단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몰몬” 혹은 “몰몬 분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언론에서 이를 부연 설명없이 보도하여 그 단체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만드는 보도 자료가 여러 차례 신문과 방송에 실리게 되었다. 이에 한국 공보 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사와 언론사에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자료를 발송하고 추후 재차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하

였다. 이 결과로 MBC에서는 2006년 7월 27일 오후 11시 30분 MBC스페셜 방송 말미에 ‘오보에 대한 사과와 정정 명시 기사문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오해가 있도록 보도한 점과 일부다처주의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무관함을 밝혔다. 한국 공보 위원회는 한국 사회에 잘못 알려진 교회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모범과 관심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이원장 기사 제공)



## 알림

### 2006년 하반기 연차 대회 방송 시간

2006년 연차 대회 방송 시간이 변경되어 알립니다. 원래 한국의 연차 대회 방송 시간은 10월 7일과 8일 양일간이었으나 이때가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귀향길에 오른 성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회 본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어 연차 대회 중계 방송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지내신 후에 각 지역에 모여 2006년 하반기 연차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연차 대회 방송 시간

10월 14일(토)

토요일 오전 모임 12시~2시(오후)

토요일 오후 모임 3시~5시(오후)

신권 모임 6시~8시(오후)

10월 15일(일)

일요일 오전 모임 10시~12시(오전)

일요일 오후 모임 1시~3시(오후)

## 지역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스테이크  
청소년 예술단 '물론 주니어'
-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청소년 대회
- 서울 스테이크  
초등학교 재능 발표회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대제사 우정 모임
- 수원 스테이크  
초등학교 대회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전주 스테이크

남원 지부 회장: 김현수(전임: 윤동주)  
이리 와드 감독: 김상규(전임: 정대영)  
전주 와드 감독: 박성률(전임: 진재명)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280기 5명/해외 2명



김종철 장로  
대구 스테이크  
경주 지부  
대전 선교부



홍광진 장로  
대구 스테이크  
경산 지부  
대전 선교부



박진주 자매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서울 선교부



손정균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배성진 장로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대전 선교부



신승태 장로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한정훈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대전 선교부